

# 블록체인/암호화폐 초보자 떼기

2017년 6월 15일 표철민

(charlespyo@gmail.com)

개념을 잘 모른 채로 처음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백서를 보면 수학 공식도 있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쉬운 개념부터 이해하고 점차 난이도를 높여 가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이 자료는 블록체인/암호화폐에 입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해 나가면 좋을지 간략히 소개해 봅니다.

## 1. 블록체인의 기초 개념과 가치 익히기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외

<비즈니스 블록체인> 윌리엄 무가야

<피넥터 보고서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 백종찬, 한승환 외

(<http://finector.com/report/>)

## 2. 암호화폐와 각 블록체인 프로젝트 공부하기

1) [www.coinmarketcap.com](http://www.coinmarketcap.com) 에 가서 상위 30여개 내외 암호화폐(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하 '코인'이라 부릅니다)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각각의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서까지 보면 어려우므로 일단 웹사이트를 쭉 살펴보고 각각의 서로 다른 목표와 특징들을 이해해 봅니다.

2) 실제 거래해 보기. 코인원/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가입해 우선 BTC(비트코인)/ETH(이더리움) 등의 주요 종목을 거래해 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와 거래소의 기본 매커니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 3. 알트코인(altcoin) 입문

해외 거래소로 주요 코인을 보내 알트코인 거래해 보기. 코인원/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한 BTC/ETH 등 주요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첫 출금은 1-2일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www.poloniex.com](http://www.poloniex.com) 이나 [www.bittrex.com](http://www.bittrex.com) 같은 해외 거래소로 내가 가진 코인을 출금해 내 코인을 주고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alternative coin이라는 뜻에서 altcoin이라고 부름)을 구입해 봅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 poloniex 거래 등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옴)

#### 4. 공부 목적의 투자 O. 묻지마 투기 절대 X

코인을 이상한 단톡방의 루머나 남들의 얘기, 특히 거래소 채팅방 등에 속아서 아무거나 사지 말고 각 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공부를 해보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인 투자의 목적을 저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기회를 이해하는데 있지 투기로 떼돈 버는 데는 절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익 목적의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통한 공부가 가장 재미있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므로 소액으로나마 투자를 해보며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 드리는 것입니다. 단톡방에도 세력이 많고 국내외에 시세 조종하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알트코인을 이상한 소문 듣고 덜컥 샀다가는 돈 날리기 십상입니다. 꼭 스스로 홈페이지 보고 백서(whitepaper, 그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구조가 소개된 문서 파일입니다. 웬만한 홈페이지에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를 읽어보고 투자하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Github과 Slack을 들어가 구경하면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투자 의사결정에서 꼭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 5. 메신저 단체대화방 참여

또한 Telegram이나 카카오톡에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된 수백개의 단톡방이 존재합니다. 거기엔 투기 이야기나 자기가 투자한 코인에 대한 은근한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좋은 글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단톡방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금 투기 목적보다 실제로 블록체인 비즈니스나 자기 관심사에 꼭 맞는 방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를 추천합니다.

Telegram 메신저에 @crypto 계정을 추가하면 100여개가 넘는 다양한 다른 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영어)

#### 6. ICO 참여

주요 코인들과 알트코인에 투자하다 보면 이제 ICO라는 것이 보입니다.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이라는 뜻으로 코인을 최초로 발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때 아직은 무가치한 코인을 사는 대가로 가치가 높은 ETH나 BTC를 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는 재원을 마련하여 실제 개발에 나섭니다. 사람들은 추후 가치가 오를 것을 희망하며 최초 코인 발행에 투자합니다. 지금은 개당 45만원을 상회하는 이더리움도 2014년에 BTC를 받는 ICO를 통해 탄생한 코인입니다. 당시 가격은 1ETH당 200원 수준이었으므로 당시 투자한 사람들은 3년만에 2천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코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ETH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ETH 기반의 ICO를 진행했던 코인들은 대개 ETH 가격 상승 대비 마이너스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개의 코인이 계속 ICO를 하고 있습니다.

[www.smithandcrown.com](http://www.smithandcrown.com) 에 가시면 앞으로 시작될 ICO를 나름의 리뷰와 함께 분석해 놓았습니다. 여기 리뷰가 또 항상 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ICO 투자는 항상 무지하게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홈페이지/백서 공부는 물론 팀 소개를 일일이 읽어보고 정말 유망한 팀인지, 달성 가능한 목표와 실행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팀이 그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ICO에 참가해야 합니다.

Google에 ICO schedule이라고 치면 [www.coinschedule.com](http://www.coinschedule.com) 등 여러 ICO 일정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ICO와 앞으로 진행될 ICO 스케줄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icocountdown.com](http://www.icocountdown.com) 과 [www.icotracker.net](http://www.icotracker.net) 도 ICO 관련하여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사이트입니다. [www.bitcointalk.org](http://www.bitcointalk.org)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을 살펴도 좋습니다.

더불어 ICO 참여 전후로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의 Slack에 참여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창업팀과의 질문 답변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ICO 참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이이더월렛([www.myetherwallet.com](http://www.myetherwallet.com))이나 JAXX([www.jaxx.io](http://www.jaxx.io)) 같은 개인 전자지갑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모든 ICO는 거래소 전자지갑으로부터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거래소에서 개인 전자지갑으로 필요한만큼의 ETH나 BTC를 이체한 후, 개인 전자지갑에서 ICO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7. 프리세일(pre-sale)

요즘 하는 ICO들은 대개 빠르게 '완판'되었다는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 ICO 이전에 프리세일을 진행합니다. 즉, 큰손들에게 미리 코인을 대규모로 팔아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높은 코인의 ICO의 경우 막상 ICO가 시작되면 소액을 참여하는 개인들은 들어갈 룬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세일은 보통 별도로 창업팀에 연락하여 최소 USD 5만불 상당의 BTC나 ETH를 미리 예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극도로 위험한만큼 큰손이 아니면 주의를 요하는 투자입니다.

## 8. IOU(I Owe You)

일부 인기 코인의 경우에는 아직 코인이 발행되기 전인데도 '나중에 코인이 발행되면 가질 권리'를 가지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를 IOU라고 부릅니다. 2017년 3월 말에 있었던 이른바 '중국판 이더리움' 프로젝트인 Qtum 코인 등이 대표적으로 IOU를 통해 3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개발팀이 2017년 5월 초 ICO에 성공한 BOScoin 역시 현재 코인 발행 전이지만 IOU를 통해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IOU 기간 중에 구매한 '권리'는 추후 코인 발행 시 거래소 지갑에 코인 형태로 입금되게 됩니다.

## 9. 뉴스 사이트

아래 뉴스 사이트들에 새 글이 올라오면 크롬 브라우저로 알림이 울리게 해 놓으면 모바일에서 신규 소식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미디어

[www.coindesk.com](http://www.coindesk.com)

[www.cointelegraph.com](http://www.cointelegraph.com)

[www.cryptocoinsnews.com](http://www.cryptocoinsnews.com)

국내 미디어

<http://theblockchain.kr/>

<https://coinone.co.kr/coinclip/>

또한 Android의 경우 ChainHub라는 해외 앱을 다운받으면 여러 관련 미디어의 뉴스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0. 관련 모바일 앱과 커뮤니티

이미 시세 보는 앱, 국내 외 거래소간 프리미엄 보여주는 앱(ex. 'BITPRE'라는 모바일 앱) 등 수많은 앱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경우 국내는 댕글([www.ddengle.com](http://www.ddengle.com)), 체인톡([www.chaintalk.io](http://www.chaintalk.io))

그리고 스팀잇의 한국 커뮤니티가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https://steemit.com/trending/coinkorea>

해외는 [www.bitcointalk.org](http://www.bitcointalk.org) 이나 [www.reddit.com](http://www.reddit.com)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여기까지 개념을 이해하고 3회 이상 자기가 직접 골라 ICO에 참여해 보았다면 일단 초보 딱지는 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첫 세 번 정도의 ICO가 실제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초보들은 엉뚱한 ICO에 들어가 돈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를 날리면서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백서와 팀, 그리고 Slack 같은 채널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기술과 팀, 그리고 비즈니스를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련의 투자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미 영문으로 된 백서를 다양하게 읽어보았고 Slack이나 Telegram 채널들과도 친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 볼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더 나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더 나은 구조의 ICO를 설계하며, 최적의 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의 산업적인 발전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저는 일단 투자로 흥미를 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계가 지금 작동하는 방식을 trading-ICO-pre-sale-IOU 등 현존하는 모든 형태로 여러 번 반복하며 익힐 때 비로소 이 산업의 간접 참여자(투자자)가 아닌 직접 참여자(사업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을 루머에 기반해 투기하는 일만 저지르지 않는 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목적으로 위에 열거한 과정을 쭉 한번 타보는 것은 분명히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의 내용이 매우 초보적이라 고수들이 보시면 웃으시겠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이 무분별하게 투기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이 분야 인재들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간단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투기에 집중하지 해외는 블록체인/암호화폐 비즈니스가 하루가 아깝게 계속 새로 등장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다 더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에 정확히 눈을 떠서 여러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나아가 의미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모두 즐겁고 가슴 뛰는 공부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여전히 열공중인 표철민 드림

- 위 과정을 모두 거치신 분들 중 진지하게 이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소개와 함께 연락주세요. [charlespyo@gmail.com](mailto:charlespyo@gmail.com) 입니다. 열심히 이 분야를 공부중인 사람들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